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타당화*

이 선 화 김 보 미 유 성 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Izard가 개발한 차별적 정서척도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차별적 정서이론(Izard, 1971)을 바탕으로 개발된 차별적 정서척도는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화,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자기 적대감의 12가지 개별적인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차별적 정서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867명을 대상으로 차별적 정서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성격 5요인 척도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차별적 정서 척도의 12요인 모두 적합한 내적 일치도 계수, 문항-요인 간 총점 상관을 보여 내적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23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차별적 정서척도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나타났다. 특히,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의 경우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한 12요인 모델의 적합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정서 12요인과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와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 차별적 정서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12정서 요인들은 성격 5요인과 차별적인 관계를 보였고, 정신병리 증상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보인 정서 요인은 수치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적 정서척도의 국내 연구에서의 활용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 차별적 정서이론, 차별적 정서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내수동로 52
Tel: 043-261-3612, E-mail: syou@chungbuk.ac.kr

차별적 정서이론(Differential Emotions Theory; Izard, 1971, 1977)은 정서에 대한 생물사회적 이론의 하나로서 진화와 적응에 있어 필수적인 생물학적,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정서를 기본 정서로 본다. 즐거움, 슬픔, 공포, 화 등과 같은 기본 정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각기 다른 특유의 얼굴표정과 연관되어 있다(Izard, 1971, 1977). 이는 각 기본 정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차별적 정서이론에 의하면 각각의 기본 정서의 경험은 행동의 목적이 되는 특정한 동기 상태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예를 들어 ‘즐거움’과 같은 정서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친밀해지고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공포’는 위협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동기를 유발하며, ‘화’는 좌절 사건이나 목표방해 행동에 대한 민감성과 적대적인 생각을 증가시켜 화를 야기한 대상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Izard et al., 1993). Izard 등(1993)은 특정 동기와 연관되어 있는 정서의 경험은 특정 동기와 관련 있는 외부 자극을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등의 개인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특정 동기와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들이 점화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인지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차별적 정서이론에서는 이러한 정서-인지의 연합이 여러 가지 정서 유발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행동 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서-인지-행동으로 연결된 반응양식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정서-동기의 연합들은 기본적으로 적응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개별 정서 고유

의 특성이기 때문에(Izard & Ackerman, 2000) 이러한 기본 정서들을 차별적으로 측정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Izard와 동료들(1993)은 차별적 정서이론을 바탕으로 차별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를 개발하였다. 최초의 차별적 정서척도(DES-I; Izard, 1971)는 차별적 정서이론과 교차문화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화,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수줍음의 10가지 기본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척도의 문항들은 피험자에게 각 정서에 해당하는 얼굴표정의 사진을 보여 주고(예; 슬픈 표정의 사진) 제시된 얼굴표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명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Izard, 1971). 이러한 초기의 차별적 정서척도(DES-I; Izard, 1971)는 요인 분석과 심리 측정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정, 재보완되었다(DES-II; Izard, 1972). 그 후에 문항 내용의 어휘를 다양한 연령과 교육 수준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던 문항들을 문장 형식으로 바꾸어 세 번째 수정본(DES-III; Kotsch, Gerbing, & Schwartz, 1982)을 개발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별적 정서척도의 네 번째 개정판에서는 이전의 10요인에서 수치심과 수줍음을 개별 요인으로 분리하고 내부 적대감 요인을 추가하여 12가지 차별적 정서요인들을 측정한다(Izard et al., 1993).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정서척도로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를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 타당화한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2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시가 간편하고 타당한 척도라는 장점이 있

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의 두 가지 차원의 정서 요인만을 살펴 볼 수 있고 보다 세분화된 개별 정서경험의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는 정서 어휘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척도인데, 언어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 이 척도의 정서 어휘들이 한국인들의 정서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Izard가 개발한 차별적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는 보다 세분화된 개별 정서들을 측정할 수 있고 문화 보편적 원리에 기반을 둔 얼굴표정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척도의 타당도와 요인 구조가 한국인들에게 적합하다면 연구 목적에 따라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와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개발된 차별적 정서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 중 한 가지는 척도에서 제안하는 정서 구조가 한국인들에게도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쾌-불쾌 또는 긍정-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의 2요인 모델은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나(Scollon, Diener, Oishi, & Biswas-Diener, 2005; Watson, Clark, & Tellegen, 1984), 차별적 정서 요인의 내용과 수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연구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구의 문헌들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으나(Watson & Tellegen, 1985),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서경험을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Scollon et al., 2005). Scollon 등(2005)은 아시아 계열 미국 대학생들

의 정서경험을 측정한 결과 자긍심(pride)과 같은 긍정 정서가 걱정,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 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유럽계열의 미국 대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는데,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Lim, Yu, Kim, & Kim, 2010)가 있는가 하면 상호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고(홍창희, 2004), 서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12요인으로 구성된 차별적 정서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 상관 여부에 따라 모델 적합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간의 상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적인 모델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차별적 정서이론에서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서들이 있고 이러한 정서경험의 특성이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일반적으로 정서의 경험은 상태 변인이라고 받아들여지지만, Izard 등에 의하면 특정 기간 동안의 정서경험은 그 사람의 특성을 반영해 준다고 주장한다. 차별적 정서이론의 기본 가정들은 정서와 성격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은 개인의 정서경험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러한 안정적인 정서경험이 특정 동기 상태, 생각이나 기억들과 연결된다는 것이다(Izard et al., 1993). Izard 등(1993)은 종단 연구를 통해 개인의 정서경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임을 보여 주었고, 정서와 성격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Izard 등의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중 놀람을 제외한 즐거움, 흥미 요인이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슬픔, 화 등의 모든 부정 정서 요인들은 신경증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흥미는 신경증과 부적 상관을, 수치심은 외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긍정 정서와 외향성, 부정 정서와 신경증의 정적 관련성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Watson & Clark, 1992).

한편, 정서와 정신 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다. 부정 정서는 우울을 포함한 정서장애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일관적으로 보고된 반면(Clark & Watson, 1991; Watson, Clark, & Stasik, 2011) 긍정 정서와 정신 병리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긍정 정서는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으나 불안과는 상관이 없거나(Clark & Watson, 1991) 약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eka, Watson, & Clark, 1998; Watson & Naragon-Gainey, 2010). 국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정 정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긍정 정서는 우울하고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긍정-부정 정서와 같은 상위차원의 정서요인들과 정신병리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이에 비해 차별적 정서들과 정신 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Watson, Clark, & Stasik, 2011). 차별적 정서척도를 사용하여 하위 정서요인들과 정신병리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슬픔과 수치심은 우울, 불안 모두와 상관이 있었고, 우울은 내부 적대감, 화와 관련이 있었고 불안은 공포, 죄책감,

흥미와 각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umberg & Izard, 1985, 1986; Izard & Blumberg, 1985). 정신 병리와 관련된 개별 정서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정서는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기평가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적응적이고(Tracy, Robins, & Tangney, 2007),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메타 분석 결과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Izard와 동료들이 개발한 차별적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를 변안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정서 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하여 신뢰도를 살펴보고, 정서 경험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일 척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하게 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Izard 등(1993)이 제안하는 차별적 정서의 12요인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상관 여부가 불명확하여 세 가지 모델을 검증하였다: (1) 모든 정서들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 (2)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긍정 및 부정 정서들 간 상관은 각각 설정한 모델, (3) 모든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한 모델. 다음으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한국판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Watson, Clark, & Tellegen, 1988)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일부 문항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

어(이현희 외, 2003; 홍창희, 2004) 이를 수정/재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Izard 등(1993)이 주장한 정서경험과 성격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요인을 측정하여 개별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반으로 긍정 정서 요인들은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 요인들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별 정서요인들과 정신병리 증상과의 차별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 불안울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을 측정하여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867 명으로 남자 444 명, 여자 416 명, 성별을 알 수 없는 7 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특성상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연구 참여자 중 230 명(남자 103 명, 여자 124 명, 성별을 알 수 없는 3 명)은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질문지를 두 번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17 세부터 33 세였고, 평균 연령은 21.10 세($SD = 2.73$)였다.

측정도구

차별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차별적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는 인간의 12 가지 기본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각 정서에 대해 3 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에 용이하도록 가장 보편적인 기간을 지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매우 자주 그렇다)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차별적 정서척도가 측정하는 12 가지 기본 정서는 다음과 같다: 흥미(interest), 즐거움(enjoyment), 놀람(surprise), 슬픔(sadness), 화(anger), 혐오(disgust), 경멸(contempt), 공포(fear), 죄책감(guilt), 수치심(shame), 수줍음(shyness), 내부 적대감(hostility inward). Izard 등(1993)은 12 가지 정서 요인 중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은 긍정정서로 나머지 정서 요인들은 부정정서로 분류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학 전공 박사 1 인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 2 인이 함께 번안한 후, 척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다섯 명의 이중 언어자에게 역 번안하도록 하였다. 역 번안 결과 번안이 매끄럽지 못한 문항들을 수정/재 번안하여 1 차 번안본을 완성하였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327 명(남 211 명, 여 116 명)의 대학생(평균 연령 21.91 세)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직각회전)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항이 적절하지 않게 번안되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원 척도에서는 긍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놀람’ 요인의 문항들이 부정 정서인 ‘공포’ 요인과 동일한 요인으로 묶

었다. 또한 부정 정서인 '경멸' 요인 중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니까?' 라는 문항이 긍정 정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문항의 내용이 타인에 대한 '경멸' 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감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1차 번안 본의 문항들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부록 참조).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 과 Tellegen(1988)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형용사로 기술된 문항에 대해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기분의 정도를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매우 많이 그렇다)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에서는 Watson 등(1988)의 원 척도에서 긍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alert'(기민한) 문항이 부정 정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현희 등(2003)의 번안 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ES-IV를 번안한 절차와 동일하게 심리학 전공 박사 1 인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 2 인이 함께 번안한 후, 척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다섯 명의 이중 언어자에게 역 번안하도록 하여 문항들을 수정한 후 최종 번안 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ANAS 최종 번안 본에서는 'alert'를 '기민한' 대신 '정신을 바짝 차린'으로 수정하였고, 이 외에

도 '부끄러움'(ashamed)을 '수치스러운'으로, '흥미진진한'(interested)을 '흥미를 느끼는'으로 수정하는 등 이중 언어자들의 역 번안 결과를 바탕으로 이현희 등(2003)의 번안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alert'가 긍정 정서로 분류되었고,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직각회전) 결과 Watson 등(198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2 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원 척도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 정서 요인 .88, 부정 정서 요인 .85 이었고 (Watson et al., 1988). 본 연구의 전체 참여자 중 27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가 긍정 정서 요인 .89, 부정 정서 요인 .89 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척도(Big Five Inventory, BFI)

성격 5요인 척도(BFI; John & Srivastava, 1999)는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전체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당도가 검증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학 박사 1인과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 2인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90 이상, 신경증 .88, 경험에 대한 개방성 .83으로 보고되었다(John & Srivastava, 1992).

본 연구에서 전체 연구 참여자 중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성 .85, 신경증 .74, 친화성 .50, 성실성 .81, 경험에 대한 개방성 .79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다차원의 정신병리 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0 점(전혀 없다)에서 4 점(아주 심하다)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총 90 개의 문항으로, 신체화(SOM), 강박증(O-C), 대인예민성(I-S), 우울(DEP), 불안(ANX), 적대감(HOS), 공포불안(PHOB), 편집증(PAR), 정신증(Psy)과 같은 9 개

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정신병리 수준을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와 같은 전체지표(Global Index)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참여자 중 27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95 로 높게 나타났다.

결 과

차별적 정서척도의 12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2가지

표 1. 차별적 정서척도 12요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N = 867)

정서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화	협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
흥미	1											
즐거움	.61**	1										
놀람	.50**	.40**	1									
슬픔	-.23**	-.49**	.05	1								
화	-.07*	-.31**	.14**	.66**	1							
협오	-.17**	-.38**	.09**	.62**	.65**	1						
경멸	-.10**	-.31**	.16**	.48**	.57**	.64**	1					
공포	-.05	-.28**	.25**	.66**	.63**	.61**	.54**	1				
죄책감	-.17**	-.38**	.06	.63**	.50**	.54**	.45**	.51**	1			
수치심	-.01	-.21**	.26**	.54**	.51**	.54**	.53**	.57**	.54**	1		
수줍음	-.06	-.27**	.20**	.59**	.52**	.60**	.56**	.61**	.58**	.70**	1	
내부적대감	-.26**	-.47**	-.02	.65**	.56**	.69**	.55**	.59**	.62**	.52**	.56**	1
긍정정서	.86**	.81**	.78**	-.26**	-.09*	-.18**	-.10**	-.02	-.19**	.03	-.04	-.30**
부정정서	-.16**	-.44**	.17**	.83**	.79**	.83**	.74**	.80**	.76**	.77**	.80**	.80**
M	8.79	9.42	7.57	6.78	6.15	4.91	5.13	5.76	7.24	6.60	6.08	5.23
SD	2.44	2.30	2.53	2.63	2.61	2.23	2.18	2.31	2.35	2.44	2.31	2.30

주. M = 평균, SD = 표준편차, 긍정 정서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의 합, 부정 정서는 슬픔, 화, 협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 요인의 합.

* $p < .05$. ** $p < .01$.

표 2. 차별적 정서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문항-요인 총점 상관(N = 867)

요인	문항	α	r	문항-요인 총점 상관
흥미	11 하고 있는 일이나 경험하는 일들이 흥미롭습니까?	.75	.57	.78~.84
	17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흥미로워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32 무언가에 대해 정신이 바짝 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들뜬습니까?			
즐거움	2 기쁩니까?	.80	.60	.81~.88
	15 행복합니까?			
	25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듯 즐겁습니까?			
놀람	8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79	.47	.80~.88
	18 믿겨지지 않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 왔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31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처럼 느낍니까?			
슬픔	7 기분이 처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79	.70	.82~.86
	21 울음이 날 듯 슬프고 울적합니까?			
	34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낙담합니까?			
화	13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낍니까?	.79	.57	.80~.86
	20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던지고 싶습니까?			
	33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혐오	4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습니까?	.79	.65	.81~.86
	24 무언가가 혐오스럽습니까?			
	27 무언가가 부패한 것처럼 역겹습니까?			
경멸	9 누군가의 인생이 가치 없는 밑바닥이라고 느낍니까?	.74	.65	.73~.86
	16 누군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29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때처럼 느낍니까?			
공포	12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길 것처럼 무섭습니까?	.75	.68	.81~.83
	19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긴장되고 공포를 느낍니까?			
	35 두렵고 떨립니까?			
죄책감	1 과거에 한 일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듭니까?	.71	.66	.72~.86
	22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30 내가 한 일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느낍니까?			
수치심	6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볼 때처럼 당황스럽습니까?	.73	.71	.78~.84
	2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습니까?			
	36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수줍음	3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고 느낍니까?	.77	.72	.82~.84
	10 숨고 싶을 만큼 쑥스럽습니까?			
	23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까?			
내부 적대감	5 나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 없습니까?	.79	.73	.81~.87
	14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까?			
	28 나 자신이 역겹습니까?			
긍정 정서		.85	.60	.55~.74
부정 정서		.95	.81	.56~.73

주. α = Cronbach's α , r = 검사-재검사 신뢰도, 긍정정서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의 합, 부정정서는 슬픔, 화,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 요인의 합.

정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 정서는 긍정 정서끼리 부정 정서는 부정 정서끼리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도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두 정서집단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흥미는 공포, 수치심, 수줍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 정서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즐거움은 모든 부정 정서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원 척도에서 긍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놀람은 화($r = .14, p < .01$), 혐오($r = .09, p < .01$), 경멸($r = .16, p < .01$), 공포($r = .25, p < .01$), 수치심($r = .26, p < .01$), 수줍음($r = .20, p < .01$)과 같은 부정 정서들과 약하지만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신뢰도

차별적 정서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 문항-요인 총점 간 상관,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표 2에는 12가지 정서를 비롯해 원 척도에서 긍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과 부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나머지 정서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적 일치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12가지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71(죄책감)에서 .80(즐거움)으로 나타났고, 긍정 정서 .85, 부정 정서 .95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에서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 본 척도가 각 정서 요인들을 비교적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요인 총점 상관

문항과 요인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12요인 모두 최소 .72에서 최대 .88까지 나타나 양호한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연구 참여자 중 23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설문을 두 번 실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r = .47$ (놀람)에서 $r = .73$ (내부 적대감), $p < .01$ 으로 나타났고, 긍정 정서 요인은 $r = .60$, 부정 정서 요인은 $r = .81$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긍정 정서 중 놀람, 흥미의 경우 부정 정서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 요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정서 요인들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r > .70$).

확인적 요인분석

차별적 정서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간 상관 설정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을 검증하였다. 모델 1은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고 각 정서경험이 독립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된 독립적인 요인 모델이다. 모델 2는 긍정 정서에 포함되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들 간 상관을 설정하고, 부정 정서 요인들끼리 서로 상관을 설정하였으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모델 3은 12요인 모두상관을 설정한 모

표 3. 차별적 정서척도 12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델 적합도($N = 867$)

모델	χ^2	df	CFI	TLI	RMSEA
모델 1 모든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	8553.407	594	.517	.458	.124
모델 2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	3153.758	555	.842	.811	.074
모델 3 모든 요인 간 상관을 설정한 모델	2609.099	528	.874	.841	.067

주. 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델이다. 이들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각 모델들을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델 1의 적합도 지수는 $\chi^2(594) = 8553.407$, CFI = .517, TLI = .458, RMSEA = .124로 이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적합도 지수는 $\chi^2(555) = 3153.758$, CFI = .842, TLI = .811, RMSEA = .074로 나타났고 모델 3의 적합도 지수는 $\chi^2(528) = 2609.099$, CFI = .874, TLI = .841, RMSEA = .067로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 볼 때, 모델 3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정서척도의 12 정서 요인과 PANAS, 성격 5요인과의 관계

차별적 정서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차별적 정서 12요인과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 성격 5요인 척도(BFI)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별적 정서척도의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은 PANAS의 긍정 정서 요인(PA)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모든 부정 정서 요인들은 PANAS의 부정 정서 요인(NA)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부정 정

서 요인들은 PANAS의 정적 정서 요인과 상관이 없었으나, 슬픔($r = -.15, p < .05$), 내부 적대감($r = -.15, p < .05$) 요인의 경우 PANAS의 정적 정서 요인(PA)과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즐거움($r = -.27, p < .01$) 요인이 PANAS의 부적 정서 요인(NA)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슬픔, 내부 적대감, 즐거움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4에 제시된 차별적 정서 요인들과 성격 5요인 척도(BFI)의 상관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 즐거움 요인은 성격 5요인 척도의 외향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든 부정 정서 요인들은 외향성, 성실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신경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 정서 중에서는 즐거움만이 신경증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r = -.31, p < .01$), 성격 5요인 척도의 친화성 요인과 관련이 있었던 유일한 정서 요인은 경멸($r = -.15, p < .05$) 요인이었다. 차별적 정서척도의 긍정 정서 요인은 외향성($r = .20, p < .01$), 성실성($r = .18, p <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34, p < .01$)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과 부적 상관($r = -.16, p < .01$)을 보였다. 부정 정서 요인은 외향성($r = -.39, p < .01$), 성

표 4. 차별적 정서척도,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척도(PANAS)와 성격 5요인 척도(BFI)의 상관계수($N = 276$)

정서요인	PANAS		BFI				
	PA	NA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흥미	.65**	-.10	.18**	-.11	.08	.21**	.37**
즐거움	.60**	-.27**	.36**	-.31**	.12	.20**	.27**
놀람	.38**	.12	-.00	-.02	.09	.02	.18**
슬픔	-.15*	.61**	-.30**	.48**	.03	-.26**	-.08
화	-.04	.49**	-.17**	.45**	-.02	-.16**	-.08
혐오	-.10	.44**	-.27**	.37**	.12	-.17**	-.11
경멸	-.07	.41**	-.27**	.29**	-.15*	-.19**	-.14*
공포	.04	.64**	-.26**	.35**	.02	-.12*	-.06
죄책감	-.09	.45**	-.33**	.41**	.06	-.27**	-.12
수치심	.00	.48**	-.38**	.33**	.01	-.15*	-.14*
수줍음	.00	.43**	-.34**	.31**	-.01	-.23**	-.08
내부 적대감	-.15*	.52**	-.41**	.40**	-.06	-.22**	-.18**
긍정정서	.66**	-.10	.20**	-.16**	.12	.18**	.34**
부정정서	-.08	.65**	-.39**	.50**	-.05	-.26**	-.14*

주. PA = PANAS의 긍정 정서 요인, NA = PANAS의 부정 정서 요인, 차별적 정서척도의 긍정 정서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의 합, 부정 정서는 슬픔, 화,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 요인의 합.

* $p < .05$. ** $p < .01$.

실성($r = .26, p <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14, p < .05$)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r = .50,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요인 모두 친화성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차별적 정서척도의 12 정서 요인과 정신 병리 증상과의 관계

차별적 정서척도의 12가지 정서의 준거 타

당도 검증을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9가지 증상 차원과 전체심도지수(GSI)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긍정 정서인 흥미($r = -.21, p < .01$), 즐거움($r = -.46, p < .01$) 요인은 전체심도지수(GSI)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 정서인 슬픔($r = .60, p < .01$), 화($r = .54, p < .01$), 혐오($r = .60, p < .01$), 경멸($r = .59, p < .01$), 공포($r = .57, p < .01$), 죄책감($r = .50, p < .01$), 수치심($r = .55, p < .01$), 수줍

표 5. 차별적 정서척도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상관(N = 277)

정서 요인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전체 심도지수
흥미	-.19**	-.16**	-.17**	-.31**	-.15*	-.06	-.13*	-.08	-.17**	-.21**
즐거움	-.32**	-.43**	-.38**	-.57**	-.36**	-.37**	-.23**	-.32**	-.35**	-.46**
놀람	-.01	.04	.01	-.01	.07	.09	-.00	.11	.06	.03
슬픔	.42**	.50**	.55**	.64**	.52**	.56**	.38**	.49**	.51**	.60**
화	.37**	.38**	.54**	.48**	.50**	.63**	.35**	.53**	.46**	.54**
혐오	.47**	.43**	.53**	.53**	.54**	.50**	.48**	.60**	.55**	.60**
경멸	.41**	.44**	.56**	.52**	.51**	.49**	.38**	.61**	.55**	.59**
공포	.42**	.40**	.49**	.52**	.62**	.54**	.44**	.50**	.50**	.57**
죄책감	.34**	.43**	.44**	.51**	.41**	.44**	.29**	.42**	.46**	.50**
수치심	.29**	.46**	.60**	.48**	.49**	.49**	.39**	.57**	.55**	.55**
수줍음	.36**	.50**	.56**	.57**	.54**	.49**	.42**	.54**	.52**	.59**
내부 적대감	.46**	.52**	.54**	.61**	.52**	.56**	.45**	.53**	.53**	.61**

주. * $p < .05$, ** $p < .01$.

음($r = .59, p < .01$), 내부 적대감($r = .61, p < .01$)은 전체심도지수(GSI)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모든 부정 정서요인들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9가지 증상차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흥미요인과 적대감, 편집증과의 상관을 제외한 긍정 정서요인들과 9가지 증상차원들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놀람 요인은 9가지 정신병리 증상 차원과 전체심도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별적 정서척도의 12 정서 요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각 정서와 정신 병리의 관계를 상관계수로만 판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서 측정하는 정신 병리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정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9가지 증상 차원과 전체 심도지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차별적 정서 척도의 12가지 정서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모두 10개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화($R^2 = .28, F = 8.19, p < .001$), 강박증($R^2 = .41, F = 15.21, p < .001$), 대인예민성($R^2 = .53, F = 24.50, p < .001$), 우울($R^2 = .59, F = 31.37, p < .001$), 불안($R^2 = .47, F = 19.07, p < .001$), 적대감($R^2 = .50, F = 21.71, p < .001$), 공포 불안($R^2 = .29, F = 8.86, p < .001$), 편집증($R^2 = .51, F = 22.43, p < .001$), 정신증($R^2 = .48, F = 19.56, p < .001$) 등의 9가지 증상차원 모두와 전체심도지수($R^2 = .57, F = 27.91, p < .001$)에서 유의미한 F 값을 보여, 정서와 정신 병리와의 관계를 지지하였다.

표 6에 제시한 각 정서 요인들과 정신 병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전체심도지수(GSI)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이 있었던 정서 요인들은 경멸($\beta = .18, t = 2.93, p < .01$), 수치심($\beta = .18, t = 3.06, p < .01$), 내부 적대감($\beta = .13, t = 1.98, p < .05$)으로 나타났고, 즐거움($\beta = -.14, t = -2.44, p < .05$)은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긍정 정서인 흥미($\beta = -.11, t = -2.10, p < .05$)와 즐거움($\beta = .24, t = 4.21, p < .01$)은 우울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불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정서 요인 중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측정하는 정신병리 증상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보인 요인은 수치심 요인으로

전체심도지수를 비롯하여 신체화, 우울 하위 척도를 제외한 강박증($\beta = .15, t = 2.20, p < .05$), 대인예민성($\beta = .35, t = 5.66, p < .001$), 불안($\beta = .15, t = 2.26, p < .05$), 적대감($\beta = .18, t = 2.91, p < .01$), 공포불안($\beta = .16, t = 2.05, p < .05$), 편집증($\beta = .30, t = 4.85, p < .001$), 정신증($\beta = .30, t = 4.65, p < .001$)과 같은 하위 척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반면 수줍음과 죄책감 요인은 전체심도지수를 비롯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측정하는 모든 정신병리 증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 대한 12가지 차별적 정서의 중다회귀 분석($N = 277$)

요인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전체심도지수
흥미	-.09	.02	-.04	-.11*	-.04	.02	-.05	.02	-.11	-.05
즐거움	-.06	-.21**	-.05	-.24***	-.11	-.11	-.04	-.10	-.05	-.14*
놀람	-.03	-.01	-.12*	.00	-.05	-.04	-.11	-.02	-.03	-.05
슬픔	.09	.10	.06	.19**	.02	.05	.02	-.05	.03	.08
화	-.04	-.06	.17*	-.05	-.00	.39***	-.03	.09	-.01	.03
협오	.16	-.09	-.04	-.05	.07	-.05	.19*	.18*	.11	.06
경멸	.14	.13	.19**	.13*	.12	.04	.04	.27***	.22**	.18**
공포	.14	-.04	-.02	.06	.36***	.04	.17	-.01	.06	.10
죄책감	.03	.06	.01	.08	-.02	.00	-.06	-.03	.08	.04
수치심	-.01	.15*	.35***	.07	.15*	.18**	.16*	.30***	.30***	.18**
수줍음	-.04	.15	.08	.13	.05	.00	.04	.02	-.05	.07
내부적대감	.11	.24**	.10	.17	.02	.15*	.13	.03	.08	.13*
R^2	.28	.41	.53	.59	.47	.50	.29	.51	.48	.57
F	8.19***	15.21***	24.50***	31.37***	19.07***	21.71***	8.86***	22.43***	19.56***	27.91***

주. R^2 , F 를 제외한 표 안의 수치는 β 값과 유의성 검증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12가지 기본 정서를 측정하는 Izard의 차별적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가 한국인들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정서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적 정서척도의 12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와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모두 양호하여 각 요인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차별적 정서척도로 측정된 긍정 정서 요인들은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존 정서척도의 부정 정서 요인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긍정 정서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차별적 정서척도의 부정 정서 요인들은 기존 정서 척도의 긍정 정서 요인과는 상관이 없으나 부정 정서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예외로 즐거움은 기존 정서 척도의 부정 정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슬픔과 내부 적대감은 긍정 정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차별적 정서척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은 중간 정도의 안정성을 보였으나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 요인들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 지수가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은 다른 정서 요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자의식적 정서로 분류된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Talbot 등(2004)은 성 폭력 피해 여성들

을 대상으로 차별적 정서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수치심, 수줍음, 내부 적대감이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인이나 다른 문화권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경험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인 세 가지 정서 요인들이 특성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부정 정서 요인의 검사-재검사 지수가 .8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긍정 정서 요인의 검사-재검사 지수보다 대략 33%정도 높은 것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된 결과이지만 부정 정서의 지속성이 긍정 정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도 본 척도가 국내 대학생들의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한다. 하지만, 요인들 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델 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모든 요인들 간 상관을 설정한 경우에 모델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12가지 차별적 정서 요인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면서 질적으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정서 범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모든 요인간 상관을 설정한 모델의 적합도 지수도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므로 다른 대안적 정서구조 모델에 대한 검토가 추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정서와 성격과의 관계를 보면, 놀람을 제외한 모든 정서 요인들이 성격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친화성이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보다는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요인들이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외향성과 성실성은 긍정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부

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신경증은 긍정 정서와 부적 상관을 부정 정서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문헌들에서 밝혀져 왔던 바인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를, 신경증은 부정적 정서를 독립적으로 예측한다는 점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부적 상관을 보였던 점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독립성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엄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zard의 차별적 정서이론(1977)에서는 신경증의 부정 정서성이 정서를 경험하는 역치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부정 정서가 유도되는 상황에서 정서에 대한 반응이 높았던 반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긍정 정서가 유도되는 상황에서 정서에 대한 반응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Larsen & Ketelaar, 1991)와 일맥상통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 정서와 신경증과의 관계는 신경증적인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동일한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긍정 정서와 외향성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외향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실성과 정서 요인들과의 관계는 외향성과 정서와의 관계 패턴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외향적인 사람과 성실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서로 다른 기제를 기반으로 긍정 정서 경험빈도를 높이고 부정 정서 경험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John과 Gross(2007)는 성실한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 경향성이 강하고 미리 계획하고 난 이후에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로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자신이 개입할 확률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상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동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상 경험 빈도가 높고, 따라서 긍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John & Gros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서와 성격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향성과 성실성이 동일한 패턴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기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정서와 정신병리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상관계수만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놀람을 제외한 모든 정서 요인들이 정신병리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정서 요인들을 하나의 회귀에서 살펴본 중다회귀 분석 결과는 특정 정서 요인들과 특정 정신병리 증상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 불안과 개별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흥미와 즐거움은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불안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 정서는 우울과는 상관이 있으나 불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Clark과 Watson(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

을 보였던 정서는 공포인 것으로 나타났고, 슬픔과 경멸이 우울과 관련 있는 정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화, 경멸, 수치심은 대인 예민성을 경멸과 수치심은 정신증을 예측하는 등 각 정신병리 증상과 관련성이 높은 정서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와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12가지 차별적 정서 요인들 중 정신병리 증상과 가장 높은 관련이 있었던 정서 요인이 수치심이었다는 것이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수치심은 전체 정신병리 수준 뿐만 아니라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측정하는 아홉 가지의 정신병리 증상 중 일곱 가지의 정신병리 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다른 정서요인들을 통제 한 후에는 죄책감과 수줍음은 어떤 정신 병리 와도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 자의식적 정서이지만, 선행연구들은 수치심의 부적응적인 면을 강조한 반면 죄책감의 경우 적응적인 기능과 부적응적인 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Tangley & Dearing, 2002; Fedewa, Burns, & Gomez, 2005). 수치심은 나 자신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과 관련되어 있어 사과, 공감 등의 긍정적인 보상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또한, 죄책감과 함께 수줍음도 정신 병리 증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대학생 집단 고유의 현상인지 일반인이나 임상 집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개발된 정서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언

어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상이하므로, 맥락 없이 정서 형용사만으로 정서를 측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서구 문화에서는 놀람 요인을 긍정 정서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연구에서 놀람은 공포 등의 부정 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항을 원척도의 의도와 최대한 일치하도록 긍정적인 맥락을 넣어 수정하였다. 또한, 본 척도의 번안을 위해 다섯 명의 이중 언어자가 역 번안하는 과정을 통하여 번안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차별적 정서척도는 정서 형용사가 아닌 문장으로 정서경험을 측정하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서 형용사의 해석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별적 정서척도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서 요인들을 측정하고 있고, 특히 슬픔, 즐거움, 놀람, 화 등과 같은 기본 정서 외에도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적 정서 요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또한, 경멸이나 화 같은 정서의 경우 타인으로 향한 감정인지 자기 자신으로 향한 감정인지에 따라 동기 상태나 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부 적대감과 같은 정서 요인의 활용도는 높다고 본다.

본 연구는 850명 이상의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내적 신뢰도 지수와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대상이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 병리와 정서와의 관계나 정서 구조가 일반인 집단이나 임상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준거 타당도 검증
을 위해 정신병리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적응성을 측정하는 준거 도구가 포함되
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
은 향후 연구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차별적 정서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한국인의 정서를 측정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정서 척도들은 대부분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2요인만을 측정하여 좀 더 세분화된
개별적 정서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
서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와 같이 간편하고
타당도가 높은 2요인 정서 척도와 12 요인으
로 구성된 차별적 정서척도는 연구 목적에 따
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차별적 정서척도의 경우 세 개의
문항으로 각 요인을 측정할 수 있고, 각 요인
별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합하므로 연구의 목
적에 따라 전체 12요인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의 요인 중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
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문화
보편적인 얼굴표정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이므로 국내 연구뿐 아니라 비교 문화 연
구에서의 활용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
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771-787.
Blumberg, S. H., & Izard, C. E. (1985). Affective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in
10- and 11-year old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94-202.
Blumberg, S. H., & Izard, C. E. (1986).
Discriminating patterns of emotions in 10-
and 11-year-old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52-857.
Clark, L.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metric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6-336.
Derogatis, L. R. (1977). *Scl-90 (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edewa, B. A., Burns, L. R., & Gomez, A. A.
(2005).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and the shame/guilt distinction: adaptive and
maladaptiv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609-1619.
John, O. P., & Gross, J., J.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351 - 372). New York: Guilford Press.
Izard, C. E. (1971). *The face of emo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zard, C. E. (1972). *Patterns of emotions: A new
analysis of anxiety and depress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 Izard, C. E., & Ackerman, B. P. (2000). Motivational, organizational, and regulatory functions of discrete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ition, pp.253-26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Izard, C. E., & Blumberg, S. H. (1985). Emotion theory and the role of emotions in anxiety in children and adults. In H. Tuma & J. Mas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109-129). Hillsdale, NJ: Erlbaum.
- Izard, C. E., Libero, D. Z., Putnam, P., & Hayes, O. M. (1993). Stability of emotional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 to trait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47-860.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102-138).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S.,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7*, 68-96.
- Kotsch, W. E., Gerbing, D. W., & Schwartz, L. E. (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 as adapte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 Izard (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pp. 251-27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sen, R. J., & Ketelaar, T. (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32-141.
- Lim, Y-J, Yu, B-H, Kim, D-K, & Kim, J-H (2010).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Psychiatry Investigation*, *7*, 163-169.
- Mineka, S., Watson, D., & Clark, L. A. (1998). Comorbidity of anxiety and unipolar mood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377-412.
- Scollon, C. N., Diener, E., Oishi, S., & Biswas-Diener, R. (2005). An experience sampling and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pleasant and unpleasant affect. *Cognition and Emotion*, *19*, 27-52.
- Talbot, J. A., Talbot, N. L., & Tu, X. (2004). Shame-proneness as a diathesis for dissociation in women with historie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445-448.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Inc.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 Tracy, J. L., Robins, R. W., & Tangney, J. P. (2007).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Watson, D., & Naragon-Gainey, K. (2010). On the specificity of positive emotional dysfunction in psychopathology: Evidence from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and schizophrenia/schizotypy. *Clinical Psychology*

- Review*, 30, 839-848.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atson, D., Clark, L. A., & Stasik, S. M. (2011). Emotions and the emotional disorders: A quantitative hierarch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1, 429-442.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D., & Clark, L. A. (1992). Affects separable and inseparable: On the hierarchical arrangement of the negative a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89-505.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4). Cross-Cultural Convergence in the Structure of Mood: A Japanese Replication and a Comparison With U.S.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7-144.
- 1 차원고접수 : 2011.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2. 3. 9.
최종게재결정 : 2012. 3. 12.

Validat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DES-IV) in a Korean population

Sun-Hwa Lee

Bo-Mi Kim

Sungeun Yo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The DES-IV is a self-report questionnaire measuring twelve discrete emotions of joy, enjoyment, surprise, sadness, anger, disgust, fear, guilt, shame, shyness, and hostility inward. A total of 867 undergraduates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DES-IV,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Big Five Inventory (BFI), and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All twelve emotion factors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item-total correlations, and test-retest reliability over a week period. In particular, shame, shyness, and hostility inward showed robust temporal st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twelve factor structure of the DES-IV when all factors were correlated each other. The DES-IV factors were adequately related to the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factors of the PANAS, supporting goo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Finally, differential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s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s well as emotions and psychopathology were examined. In conclusion, the DES-IV is a valid measure of twelve discrete emotions in a Korean population.

Key words : Emotion, Differential Emotions Theory, Differential Emotions Scale, Reliability, Validity.

부록. 차별적 정서척도

다음은 정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얼마나 자주 아래의 감정들을 느꼈는지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과거에 한 일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듭니까?	1	2	3	4	5
2	기쁩니까?	1	2	3	4	5
3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고 느낍니까?	1	2	3	4	5
4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습니까?	1	2	3	4	5
5	나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 없습니까?	1	2	3	4	5
6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볼 때처럼 당황스럽습니까?	1	2	3	4	5
7	기분이 처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8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1	2	3	4	5
9	누군가의 인생이 가치 없는 밑바닥이라고 느낍니까?	1	2	3	4	5
10	숨고 싶을 만큼 쑥스럽습니까?	1	2	3	4	5
11	하고 있는 일이나 경험하는 일들이 흥미롭습니까?	1	2	3	4	5
12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길 것처럼 무섭습니까?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낍니까?	1	2	3	4	5
14	내 자신에게 화가 납니까?	1	2	3	4	5
15	행복합니까?	1	2	3	4	5
16	누군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1	2	3	4	5
17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흥미로워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1	2	3	4	5
18	믿겨지지 않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 왔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1	2	3	4	5
19	위협에 처한 것처럼 긴장되고 공포를 느낍니까?	1	2	3	4	5
20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던지고 싶습니까?	1	2	3	4	5
21	울음이 날 듯 슬프고 울적합니까?	1	2	3	4	5
22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1	2	3	4	5
23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까?	1	2	3	4	5
24	무언가가 혐오스럽습니까?	1	2	3	4	5
25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듯 즐겁습니까?	1	2	3	4	5
2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27	무언가가 부패한 것처럼 역겹습니까?	1	2	3	4	5
28	내 자신이 역겹습니까?	1	2	3	4	5
29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때처럼 느낍니까?	1	2	3	4	5
30	내가 한 일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느낍니까?	1	2	3	4	5
31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처럼 느낍니까?	1	2	3	4	5
32	무언가에 대해 정신이 바짝 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들뜬습니까?	1	2	3	4	5
33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1	2	3	4	5
34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낙담합니까?	1	2	3	4	5
35	두렵고 떨립니까?	1	2	3	4	5
36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